

분류	구역공과-2017년 27과
제목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매일 오순절
성경	사도행전 2:1-47, 출애굽기23:14-17
일시/장소	2017년 7월 2일,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 성경말씀 (사도행전 2:1-47, 출애굽기 23:14-17)

- 14/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 15/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 16/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 17/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구역공과 자료 ♣

♣ 서론 -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세절기의 배경

-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 후 노예가 된 이스라엘(출 1:8-11, 행 7:17-19)
- 2)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출 3:1-18)
- 3)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이유
 - (1) 10가지 재앙(출 7:19-12:36) -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 (2) 10가지 재앙의 결론 - 사탄과 모든 재앙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출 12:12, 민 33:4, 출 12:26-27, 신 7:2-25, 출 10:2)
- 4)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이 언약 -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1.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세절기의 축복

- 1) 유월절(출 12:1-37)
 - ▶ 구원의 축복(고전 5:7, 엡 1:7, 요 5:24, 골 1:13, 요 1:12, 고전 3:16)
- 2) 맥추절(출 23:14-17) - 맥추절은 칠칠절(七七節, 신 16:9-10) 또는 오순절(五旬節, 행 2:1)이라고도 한다.
 - ▶ 성령의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축복
- 3) 수장절(출 34:18-23)
 - ▶ 영원한 천국배경과 세계복음화의 축복(빌 3:1-21, 마 12:28)

2.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하여야 할 맥추절의 의미와 축복

- ▶ 출 14:19-20(주의 사자), 출 14:24-25, 민 14:14(구름기둥과 불기둥, 출 16:1-36(만나와 메추라기), 신 8:15(생수), 요 14:16-17, 요 16:13-14, 요 14:26-27
- 1) 먼저 버려야 할 것 -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 2) 회복해야 할 것 - 성령의 인도 감사, 성령의 보호 감사, 성령의 역사 감사

3. 오순절의 응답을 누린 초대교회의 증거 (행 2:1-47)

- 1) 5가지 능력 -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행 2:1-4), 전도의 능력(행 2:9-11), 말씀성취의 능력(행 2:14-21), 3천 제자(행 2:41), 현장 변화의 역사(행 2:42-47)
- 2) 5가지 시간표 - 능력 임재의 시간표(행 2:1), 전도의 시간표(행 2:5), 말씀성취의 시간표(행 2:18), 3천 제자의 시간표(행 2:41), 현장 역사의 시간표(행 2:46-47)
- 3) 5가지 문 - 능력의 문(행 2:1), 전도의 문(행 2:9-11), 3천 제자의 문(행 2:41), 경제축복의 문(행 2:43-45), 현장변화의 문(행 2:46-47)

♣ 결론 - 하나님 자녀의 참된 감사(빌 3:1-21, 살전 5:16-18)

- ▶ 구원의 은혜 감사, 기도응답 감사, 전도 대열에 선 것 감사, 복음위한 고난 감사

(The end)

♣ 서론

- ▶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다. 출 23장 말씀이다. 출 23:14-17의 말씀을 보겠다. 출 23:14-17이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빔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 ▶ 자, 이번 주간 우리 구역공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매일 오순절이다. 매일 오순절, 날마다 오순절이다. 매일 매일 날마다 오순절의 하나님의 능력, 그 축복을 사실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날마다 매일 하나님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 하는 것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오순절의 역사를 그 사람이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결국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삶이다.
- ▶ 자, 오늘이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게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절기가 나온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이 세 가지 절기를 매년, 매 해마다 지키라.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서론 - 이유?

- 오늘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다. 그 이유다.
- 1) 광야 길 - 세 절기, 성막
 - ▶ 하나님은 광야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말 그대로 광야 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여 광야의 길로 가고 있다. 광야 가는 길에 세 절기를 말씀하셨다. 왜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지, 그뿐만 아니라 광야 가는 길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아니, 광야 가는 길도 힘든데? 절기를 지키고 성막을 지으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된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가고 있다. 그 답이 오늘 이 속에 있다. 왜 하나님은 광야 가는 길에 세 절기를 말씀하시는가?

(1) 기억하라

- ▶ 사실은 기억하라.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하라. 뭘 기억해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 되어 짐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 응답하신 것을 기억해라. 세 절기로 지키 때마다 아, 그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응답 되었지? 잊지 말라는 것이다. 절기를 지키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다.

(2) 치유, 갱신, 회복

- ▶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속에 뭐가 있나, 치유가 있다. 갱신이 있다. 절기를 지키 때마다 치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사실은 회복하는 길이 뭐냐, 이 길이다.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했다. 그 근성이 어떠한 것인가? 노예 살이 근성, 광야 가면서 광야의 근성, 이런 근성들을 절기와 성막을 통하여 치유 받는 회복의 길이다. 절기를 통하여 절기 때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절기를 지키 때마다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고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제질들이 치유 되고 회복 되어지는 시간을 갖는다.

(3) 언약 전달 - 후대

- ▶ 자, 그리고는 뭐하냐?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후대들에게다. 절기를 지키는 때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이 유월절 절기가 뭐냐? 하나님이 유월절 절기 지키는 때 편안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아니했다. 쓴 나물을 먹으라. 그리고 그 누룩에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라. 그것도 일어나서 먹어라.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매고 유월절 절기 지키는 때 가족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절박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자녀가 묻지 않았는가? 출애굽 때 함께 나왔던 자녀들은 알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상황을 모른다.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단다,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런 예식을 지키는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세 절기를 말씀하신다.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 광야 가는 길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절기와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자, 그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 절기를 말씀하신다.

2) 배경

- ▶ 자, 세 절기의 배경을 말씀하겠다.
- (1) 애굽 - 요셉
 - ▶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 사실

은 종살이 하기 이전을 말씀 드린다. 애굽이란 나라가 그 시대에 최강대국이였다. 하나님은 이 애굽에 복음화, 애굽 복음화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은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그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다. 그 시대에 최강대국 애굽이 복음화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잠은 요셉이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전도자로 사실은 애굽으로 보낸다. 노예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내지만 요셉은 노예로 간 게 아니다. 애굽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간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이 전도자 요셉이 애굽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다. 요셉도 사라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요셉 시대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되어 지지 않는 언약이 희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2)노예- 모세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언약이 상실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 영적인 고통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의 삶이 시작 되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놔두기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전도자를 또 세우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 그 모세 가슴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심어주신다. 이 모세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디어 다시 애굽으로 간다.

(3)10재앙(우상)- 출3:18

▶그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사실 애굽의 우상 세력들이다. 이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복음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그게 출3:18이다. 흑암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비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하나님의 역사, 출3:18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한다.

(4)언약 전달- 후대(세 절기)

▶그리고는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셨다.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그게 바로 세 절기다. 자, 세 절기의 배경은 그렇다.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해라. 그래서 후대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라.

▶오늘 이런 서론적인 말씀을 기억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1.세절기의 의미

▶자, 첫 째는 세 절기의 의미다.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나?

1)유월절- 구원

▶첫 째, 유월절이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3:18의 복음이 선포되어 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400년에 노예 생활, 그 어떤 힘으로도 청산할 수 없다. 바로의 막강한 세력, 그 어떠한 세력도 바로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월절이다.

2)오순절- 성령

▶두 번째는 오순절이다. 자, 오순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똑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다가 굶어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50일 만에 추수를 하여 곡식을 거둬 드리게 되었다. 죽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오순절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다.

3)수장절- 배경

▶자, 세 번째는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이다. 이제는 곡식을 거둬 드려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 의미를 담아 우리의 영적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영적 배경이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세 절기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

2.매일 오순절 축복(능력)

▶자, 그렇다면 매일 오순절의 축복을 사실 우리가 누리야 될 그러한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 매일 오순절의 축복이다.

1)약속- 수4:6, 율2:28, 행1:8, 행2:1-4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 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미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역사를 말씀하셨다. 자, 수4:6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오순절의 축복, 오순절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다. 율2:28이다. 하나님이 약속한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 말씀의 약속이 사실은 행1:8,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입게 되는 것이다. 행2:1-4, 그래서 오순절 날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응답으로 임하게 되었다.

2)버릴 것- 근성(각인, 뿌리, 체질)

▶자, 여기서 매일 오순절의 축복, 사실은 오순절의 능력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게 있다. 자, 뭘 버려야 되느냐? 애굽의 근성이다. 노예 살이 하던 애굽 노예 근성, 광야의 근성이다. 이런 것들 다 사실 버려버려야 된다. 이게 사실 잘못 각인 되고 뿌리 내려진 체질 된 부분을 버려야 된다. 날마다 오순절의 능력,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회복 되는 것이다.

3)회복할 것, 참 감사

▶그렇다면 지금부터 회복할 게 있다. 자,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다. 그렇다. 매일 오순절의 능력과 축복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에 참 감사 회복하기를 바란다. 오늘 맥추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회복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

3.초대교회의 증거(행2:1-47)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의 증거다. 초대교회가 어떤 증거를 입었느냐? 행2:1-47이다.

1)5가지 능력

▶자, 첫 째는 다섯 가지 능력이다.

2)5가지 시간표

▶두 번째는 다섯 시간표다.

3)5가지 문

▶세 번째는 다섯 문이다. 자, 이 세 개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 같은 것이다. 자,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다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다.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이 성취 되니 거기에 제자가 일어났다. 제자가 일어나니 그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초대교회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게 5능력, 시간표, 문을 설명하는 의미다.

◆결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다. 결론을 맺기 전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다. 자, 여기가 애굽이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요? 몇 년이요? 짧은 세월이 아니다. 400년이 나 된다. 400년 동안 그냥 행복하게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살았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노예다. 또 자식을 낳으면 노예다. 여러분 400년이면 몇 대가 되겠는가? 자자손손 노예다. 바로라는 막강한 세력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씀하신다. 그게 출3:18,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이게 복음이다. 저주와 재앙의 흑암 세력이 빠져 있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 빠져 나오게 것이다. 우리의 가문이 혹 그럴 수 있다.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다. 우리의 가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상숭배다. 수 천 년, 수 백 년 우상숭배다. 그러나 그 가문이 한 순간 회복 되는 시간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날 그 가문을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축복을 기르는 것이 유월절 절기다. 구원의 그 은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받았다.

▶자, 예를 한 번 들어보겠다. 어떤 집은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아주 문설주에다가 진하게 잘 발랐다. 그 옆 집 철수네 집 아빠는 이렇게 말한다. 얘야, 바른다고 뭐가 되겠니? 그냥 옆집에 쓰다가 남은 것 쓰다가 남은 것 쓸 안 바를 수 없고 조금이나 바르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다. 철수네 집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유월절 예식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게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다. 내가 믿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이전이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아닌가요?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죽음의 재앙이 철수네 집을 뛰어 넘었다. 그 말에 의하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뛰어 넘는 것이다. 뛰어넘는다, 영어로 passover, 뛰어 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길이다. 애굽에서 나왔다. 광야 길이 어떤 길인가? 여기에 모든 문제가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끊임없이 생긴다. 때로는 위기도 만난다. 어떤 위기인가? 가다보니까 흥해도 막혔다. 먹을 것도 없다. 물이란 게 있는데 쓴 물이다. 여리고의 난공불락, 요단도 건널 수 없고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 문제다.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아느냐? 그 문제를 통하여 애굽의 근성, 노예 근성, 광야의 근성 빨리 치유 받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뭘 했느냐? 원망, 불평 했다. 아이고, 애굽에 있었던 게 더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그저 치유 받지 않으면 사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 수 없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3장 저주에서 빠져 나왔다.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의 예비 된 천국은 이미 보장 되어 있다. 가는 사람들이 승리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이 모세에게 말씀한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하마, 가나안 땅을 내가 예비했다. 약속은 한 마디로 함께이다. 이거 믿으시면 된다. 이거 놓치지 않도록 세 절기 말씀하시고 성막을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다. 광야 길 같은 우리 신앙생활,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문제 만날 수 있다. 때로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의 배경은 가나안이다. 그래서 날마다 오순절의 역사다. 우리의 배경, 가나안 수장절이다.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보장 되어 있다.

중요한 건 지금, 매일, 날마다, 오순절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누리라는 것이다.

1)매일(날마다)오순절 - 능력, 축복(누림)

▶자, 그래서 결론이다. 날마다, 매일이다. 왜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느냐? 날마다 오순절이다. 오순절의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함께 한 증거다.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오늘 맥추절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2)참 감사 회복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여기에 참 감사를 회복하는.. 결론 두 가지다. 날마다 오순절의 역사, 날마다 오순절의 그 능력,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진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날마다 오순절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런 절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잃어버렸던 참 감사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http://data.rutc.com> ②<http://www.jcking.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010-3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010-5375-9383 ☞3759383@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